



무등산 변산바람꽃



다도해 유채꽃



지리산 복수초

봄꽃이 '톡' '톡' ... 국립공원 꽃구경 오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야생화 관찰시기, 장소 등 봄철 탐방정보를 최근 공개했다.

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첫 봄꽃 소식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자연관찰로에서 들려왔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가 지난달 24일 꽃망울을 터뜨린 것. 복수초 개화는 지리산의 경우 지난해(2월 15일)보다 12일 빨랐다.

무등산에서도 봄을 알리는 대표적 야생화인 복수초(2월 2일·약사사·용추계곡), 변산바람꽃(2월 4일·바람재·평두메 일원) 등이 2월 초부터 피기 시작했다. 올해는 포근한 날씨 탓에 예년보다 20일 정도 개화가 빨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도 지난달 4일(고흥) 복수초를 시작으로 9일 여수에서 변산바람꽃, 13일 거문도에서 유채꽃 등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지난 1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이달 초 만개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산수유마을로 유명한 구례군 산동마을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부터 노란빛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할 예정이다. 3월 말이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무등산은 산수유(갓고개·동문지)와 생강나무(동적골·자주봉·마집봉)는 각각 3월 중순과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3월 말과 4월 초순까지 노란빛으로 물들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 야생화 관찰시기·장소 등 봄철 탐방정보 공개

무등산 지금 복수초·변산바람꽃이 절정 ... 산수유는 3월에 활짝

■ 국립공원별 봄꽃 관찰시기 및 장소

공 원	봄 꽃	볼 수 있는 곳	개 화	절 정
다도해	동백나무	금오도 우학리 해변 도로	2월 중	3월 초
	유채(제배)	청산도 화랑포	4월 중	4월 중
	진달래, 현호색	홍도1구~2구 탐방로	3월 중	4월 중
월출산	얼레지	도갑사~역세발 탐방로	3월 초	3월 중
	동백나무	무위사 자연관찰로	3월 중	3월 말
지리산	얼레지	유평마을	3월 중	3월 말
	복수초	중산리자연관찰로 내	3월 초	3월 중
	산수유	쌍계사 안	3월 중	3월 말
	매화			
	히어리, 생강나무	백사골 계곡	3월 초	3월 말
	산수유	산동마을	3월 초	3월 말
홍매화	화엄사 안	3월 중	3월 말	
무등산	히어리	성삼계~천은사 구간	3월 말	4월 중
	복수초	약사사·용추계곡	2월 초	2월 중
	변산바람꽃	바람재 ~ 평두메 일원	2월 초	2월 중
	틸조장나무	원효봉, 무진교동문지	2월 말	3월 초
	산수유	갓고개~동문지	3월 중	3월 말
	생강나무	동적골~자주봉~마집봉	3월 말	4월 중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소 내 표준 관측목을 기준으로 작은 가지에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의 경우 한 개체에 세 송이 이상이 피었을 때 개화라고 한다. 절정 시기 또한 표준 관측목을 기준으로 한 개체에서 80% 이상 꽃이 피었을 경우를 절정 시기로 부른다.

국립공원에서의 개화 시기는 기상청 발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국립공원의 해발고도가 높고 계곡의 영향으로 기상관측소의 기온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에서도 뱃나무, 산수유 나무 등 다화성 식물의 경우 한 개체에 세 송이 이상 피었을 경우 개화로 판단하며, 한 개체에 하나의 꽃이 피는 단화성 식물과 초본류인 야생화의 경우 그 개체 중 가장 빨리 핀 시기를 개화로 본다. 절정의 판단도 뱃나무와 같은 다화성 식물의 경우는 기상청 기준과 같으며(한 개체의 80% 이상 개화), 단화성 식물과 초본류인 야생화의 경우 근각을 이루거나 해당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개체 중 80% 이상이 꽃을 피었을 경우 절정으로 본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다음달 5일(경칩)으로 보고 있다.

권옥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올해는 봄꽃 소식이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빠르다"며 "공원별 개화시기에 맞춰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고독사 없는 동구 만들기

광주시 동구, 1인가구 지원 확대

광주시 동구가 '고독사 없는 따뜻한 동구 만들기'를 추진한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9.7%(호남지방통계청 지난해 현황)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독사나 은둔형 고립 등의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구는 중장년 위기독거남성 지원을 위한 '4060희망프로젝트', 위기독거가구 관리를 위한 '따뜻한 행복전환', 1인가구와 자원봉사자 결연을 위한 '1인 가구 1촌 결연 맺기', 1인가구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일잔치 행복환상' 등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구를 중심으로 13개동 고독사 예방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사랑채를 활용, 주민참여 고독사 예방사업 사업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은둔형 고립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남구치매안심센터 개원

노대동 송화마을에서 본격 서비스

광주시 남구치매안심센터가 노대동 송화마을 4단지 인근에 새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남구는 "치매 관련 통합 관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대동에 지상 2층 규모로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지난 24일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을 비롯해 상담실, 검진실, 쉼터, 가족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의사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25명이 상주하며 치매 예방부터 돌봄, 진단, 가족지원까지 이용자 중심의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내 치매환자 및 가족, 주민들이 치매 관련 통합 관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된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센터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협약

지역사회 발전 방안 마련·선진 환경정보 공유 등 협력사업 추진

전남대가 주관·운영하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박정훈·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지역 환경문제 해소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

전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정영일 상임회장)와 25일 오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 마련, 선진 환경정보 공유 및 관련 환경사업협력과 지역 시민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박정훈 센터장은 "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기업환경지원사업·환경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협력 구축을 통하여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 요구 증대와 지역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연구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환경시설진단 및 애로사항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기업환경지원사업, 지역민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 지정기관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